새해의 기도

A Prayer for the New Year

빌립보서 1:9-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월 8일 설교

[9]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9]제가 기도합니다. 그대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더욱 풍성해져 [10]그대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끗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 [11]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합니다.

2012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시편 일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첫 두 절을 암송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맛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사는 삶이요,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새해에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폈듯이 그게 바로 복 받는 삶이고 복 받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진짜 예수쟁이답게 살자는 말이지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희미한 생활 이제 청산하고 화끈하게 주님을 위해 남은 삶을 제대로 좀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인데 우리를 위해 드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도 좋은 기도이면서 또 내 삶,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마땅한 그런 기도입니다.

본문을 두 번 썼는데 앞에 나온 건 우리가 가진 성경 그대로입니다. 뒤의 것은 제가 좀 고쳤습니다. 내용을 고친 건 아니고 반말을 높임말로 바꾸고 또 그냥 원문의 구조가 좀 드러나게 우리말 모양만 조금 바꾸었습니다. 원문은 "내가 기도한다" 한 다음 그 뒤에는 기도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영어는 성경 원문과 순서가 비슷해서 좀 쉬운데 우리말로는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해 놓고 끝에 가서 또 "구한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대화가 곧 기도

자,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말씀은 없고 그냥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그대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대들이 깨끗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고,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겠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들이 참되고 흠이 없도록 지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그런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그랬고 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기도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피면 기도한다 해 놓고서도 하나님은 언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마치 내 생각, 내 희망을 말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 네 마음을 열어놓으니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인데, 내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건 그만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겠지요. 내가 바라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같다, 참 놀라운 경지 아닙니까? "너

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가 된 거지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첫째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희망, 내 욕심을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꿈도 꾸고 희망도 가져 보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우리 다 바라는 게 있지요. 그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기도로 만들어 보면 대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기를 애쓰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대화가 됩니다.

기도와 믿음

생각이 곧 기도요 그걸 주고받는 대화가 또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대화, 이런 생각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담겨 있는데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걸 서로 나누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예수 믿는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온 우주도, 내 삶의 세미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희망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사랑이 더욱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깨끗하고 흠 없는 자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자기 희망과 기대사항과 부탁을 전하면서 왜 기도한다 했습니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 주시는데 사랑이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데 어떻게 뛰어난 분별력이 생기겠으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이 곧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싶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건강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분이신 줄 아니까, 안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줄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 되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안 살 수가 없지요.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잘 해치우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바로 살게 됩니다. 또 바로 살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와 책임

기도는 기도인데 대화로 합니다. 너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닌 빌립보 교인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거기 책임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맡은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 우리말 번역을 조금 고쳐 본 겁니다. “풍성하게 하사” “되게 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듯한 표현을 뺐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좀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다가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깜빡 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해 달라 하는 만큼,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성적이 잘 나오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맞지요. 기도는 내 노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안 하고 달라고만 하는 건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면서 또 나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좋은 성적을 바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달라 하니 하나님을 놀리고 거짓말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눅 10:2-3).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 달라 기도하라 가르치시고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거짓입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으니 남 시키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 지금 남미 지역에 복음이 시급히 들어가야 되겠는데 얼른 도와주세요 해 놓고 나는 돈도

다른 데 쓰고 시간도 다른 데 쓰면 안 되겠지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안 굶어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돈 한 푼 안 보낸다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대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담겼지만 그 기도의 내용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점도 담겼습니다.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애쓰기를 바란다는 뜻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인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

기도 내용을 보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쓰라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 4:`5). 예수를 처음 믿은 순간부터 남다른 사랑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자금을 몇 번 보냈습니다 (빌 4:16). 그 풍성한 사랑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 디도를 그 먼 로마까지 파송해 바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돌아본 것은 주님을 보살펴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 25:31-46).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 4:18). 바울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삶의 최대 목표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이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식과 명철을 활용하라 합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사랑은 즉흥적으로 가볍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따져보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모든 명철"이니 두루 잘 따져보고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따로 두면 위험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전 8:1). 그렇지만 사랑에 활용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위험한 지식을 가장 귀한 방법으로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지식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깨달음 위에 다른 지식을 쌓으면 우리는 그 지식을 사랑을 위해 값지게 쓸 수 있습니다.

값지게 쓰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지식 그런 총명은 우리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엉뚱한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바른 지식은 우리 사랑을 더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이라는 말을 거듭 쓰고 있습니다. 발전이요 상승효과를 말합니다. 지식과 총명을 바르게 쓰면 쓸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이지요. 어느 정도 풍성해집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릴 줄" 알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려낸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원의 문제 말입니다. 학교를 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생애가 다하고 난 뒤 영원한 세월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영원한 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이 세상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못 보고 시시한 잡동사니를 보석인 양 쫓아다니고, 그런 쓰레기를 몸에도 걸치고 집에도 잔뜩 쌓아놓고 그걸 자랑도 합니다. 그건 귀한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지요. 가장 귀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 우리 모든 지식을 오직 사랑하는 일 하나에 활용할 때 우리는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두 번째 기도는 순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깨끗하고 흠 없는 인격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부터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빌어줄 게 하나 둘이 아니지만,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번창하기를 빌어줄 수도 있지만 바울은 가장 귀한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빌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원문이 “햇볕에 비추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이지요. 밝은 데서 환히 비추어 보았는데도 더러운 게 안 보인다면 그건 깨끗한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마음, 곧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기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비교가 되지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이 세상 수준에서 끝이 납니다. 건강, 행복, 성공, 합격, 명예, 승진, 자녀,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안 쉬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대박 터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새해 운세를 살필 때 기대 안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면 열매가 맺힙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삶이라 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바른 삶입니다.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한 때는 깨끗하게 산답시고 세상을 등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등지면 아무래도 깨끗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살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곳은 같지만 사는 목표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 뒤섞이지 말고, 물들지도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결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덕에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던 의로운 삶을 이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속이는 일, 빼앗는 일,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쓰는 일, 어떤 것이든 그게 다 내 정욕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던지고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성공, 불의한 즐거움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물질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성취를 맛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평안함,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심지어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바로 살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함과 사랑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삶에 위선이 없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속 마음과 말이 다르면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도 위선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못 삽니다. 우리는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가지고 그 깨끗한 마음이 말로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애써야 됩니다.

새해에 바라는 것들 많으시지요. 혹 뒤죽박죽이 된 건 없는지, 세상 것과 하나님을 뒤섞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위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께 맡기고 해결해야 됩니다. 뒤섞여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헛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을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인정받지 못할 성공이라면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평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내 지식도 판단력도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그게 사랑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가 그걸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겠는지, 그 유익이라는 것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참 유익인지, 잘 생각하고, 따져보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행동은 깨끗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도 행동도 사랑으로 하는 그게 깨끗한 인격이요 삶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니 우리 책임이지요. 올해는 우리 그렇게 사랑을 키워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뒤섞여 잡탕이 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삶, 사랑의 삶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됩니다.

바른 기도

마음과 말이 다르면 위선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기도한다고 바른 건 아닙니다. 마음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얼마나 같아졌는가, 둘째, 내 생각 내 행동이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셋째, 나부터 내 기도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 깨끗한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하면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교우들을 위해 많이 기도합시다.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게 직장 다니는 분들도 가서 일 잘 하게 기도하고 학생들은 공부 잘 하게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믿어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쉬는 시간에 휴식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고 그 사람의 공부도 일도 휴식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 믿는 이웃을 위해서는 얼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판단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더욱 더욱 풍성해져 가장 귀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2012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수경 목사)